

안과 밖의 마이너 필링스

: 한국계 미국인 서사의 유통과 소수적 감성의 재배치

김소혜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새로운 인종 정치 담론 속의 아시아계 미국인 서사
- 3 한류와 한국계 미국인 문화 상품의 부상
- 4 「미나리」: 젠더화된 소수적 감정, 어떤 소수적 감정이 서사화되는가?
- 5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과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의 연결과 단절
- 6 나가며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21-KDA-1250003)

본고는 캐시 박 홍의 개념 ‘소수적 감정 (minor feelings)’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담론을 끌어낸 한국계 미국인 서사를 분석한다. 먼저 ‘소수적 감정’을 멈추어 있거나 결정화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경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움직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맥락화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며,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의 소수적 감정이 미국과 한국 사회라는 경계의 안과 밖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소비되며 새롭게 위치 지어지는지, 그 과정을 검토한다. 2021년 리 아이삭 정 감독의 영화 「미나리」를 통해 소수적 감정이 어떻게 젠더화되어 나타나며, 그중 어떤 소수적 감정이 서사화되는지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에서 이 영화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수적 감정이 재배치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민진 리의 2017년 소설 『파친코』에서 한국계 미국인과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이 연결되고 단절되는 지점을 분석한다. 이처럼 ‘소수적 감정’이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재배치되는지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본고는 한국의 문화적 자장 안에서 캐시 박 홍이 제시한 ‘소수적 감정’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이고도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문핵심어: 마이너 필링스, 소수적 감정, 캐시 박 홍, 「미나리」, 리 아이삭 정, 『파친코』, 민진 리, 한국계 미국인,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1 들어가며

2020년 출판된 캐시 박 홍의 책,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¹은 저자가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여성 이민자로 살아가며 느껴온, 서사화되지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소수적 감정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펼치며 많

1 Cathy Park Hong,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New York: One World, 2020.

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이듬해 한국에서 『마이너 필링스-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²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한국 내 여러 형태의 소수적 정동과 발화, 그리고 주류 담론에 대항하는 역사적, 사회적 목소리들과 공명하며,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활기찬 담론의 열기에서 한 발 떨어져,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가 미국과 한국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서사 내의 ‘소수적 감정 (minor feelings)’이 어떻게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재배치되는지를 검토하고, 한국의 문화적 자장 안에서 캐시 박 홍이 제시한 이 개념을 비판적이고도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캐시 박 홍은 ‘소수적 감정’을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정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외부에 의해 강요된 정형화된 이미지와 겪는 인지 부조화 과정에서 솟아나는, 흔히 사소하다고 치부되는 감정으로 설명한다.³ 특히, 저자는 이 감정들이 소수화되는, 혹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맥락에 미국의 다인종주의에 대한 낙관주의와 개인적 능력에 대한 성과주의의 신화, 그리고 전지구적 자본주의 속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가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누구든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미국 사회에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유색인의 일화를 통해 강화되며, 인종과 관계없이, 성적 지향성과 관계없이, 계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신화화된다. 특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유색인종으로, 아프리카계 혹은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의 대척점에서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모범적인 소수자 (model minority)로 정형화되어 왔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능력주의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집단으로 표상되어왔다. 1965년 미국의 할당 이민 제한법이 폐지되며 한국계 미국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시기는 흑인 민권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와 맞물리며, 따라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시기에 한국인들은 마치 무임승차를 하듯이 소리 없이 미국 사회에 들어와 아메리칸 드림을 강화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백인 우월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철저히 위계화된 미국 사회에서, 한

2 캐시 박 홍,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마티, 2021.

3 위의 책, 84-86쪽.

국제 미국인은 인종적이기엔 어딘가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모자라 보이고, 그렇다고 백인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지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미국의 인종적 격돌에 충분히 속하지도 않은 존재로 비가시화 되었고, 그들의 감정 역시 소수화된 사소한 감정으로 여겨졌다.

이 글은 ‘소수적 감정’이 기본적으로 인종화된 감정이며, 어떠한 인종적 지형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원저의 부제, ‘Asian American Reckoning’이 뜻하는 것처럼, 저자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겪는, 사소하다고 치부되는 감정들의 근원을 더듬어나간다. 따라서, 저자가 논의하는 ‘소수적 감정’은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이자 고학력자 시스젠더(cisgender)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한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수적 감정’은 멈추어 있거나 결정화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움직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맥락화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미국 사회라는 경계의 안과 밖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번역되어 소비되는지,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가 미국 사회와 그 너머에서 위치 지어지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저자의 인종적 정체성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경계 안과 밖에서 소수적 감정은 어떻게 재해석 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형적 경계를 디아스포라의 거주국과 고국이라는 근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서로 다른 인종적 위계와 담론이 자본주의 체제와 얽혀 작동하는 단위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자가 서로의 안과 밖이 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서사의 소수적 감정은 어떻게 번역되고 소비되며, 어떻게 소수화되는 동시에 주류화되며, 안과 밖의 감정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본고는 이 질문을 따라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주목받은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를 분석한다.

2 새로운 인종 정치 담론 속의 아시아계 미국인 서사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에 대한 학계를 넘어선 대중적 공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아시아계 미국인을 둘러싼 미국 사회 내의 급진적 변화의 배경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바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백인 우월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인종적 담론이 부상한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8년간 재임한 이후 시작된 트럼프의 시대는 미국의 다인종주의에 대한 낙관주의적 가면을 벗기는 동시에, 깊게 뿌리내린 인종주의적—보다 정확히는, 백인 우월주의의—정치 경제적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물 건너간 것으로 치부되던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는 다시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형식적인 징표이자 인종주의를 비역사적으로 재현하는데 동원되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너무나 보이지 않아서 (혹은 정치적 목소리를 가지지 않아서)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민권운동의 틈을 메우는 투명한 “실리콘 같은 존재”⁴였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서사를 주류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을 알린 작품은 케빈 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2018년도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Crazy Rich Asians)」일 것이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대표 스튜디오 제작한 작품 최초로 모든 주요 배역을 아시아계 배우로 캐스팅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세탁소 주인이나, 네일 살롱의 종업원이 아닌, 초부유층 주연으로 등장하면서, 할리우드의 뿌리 깊은 인종 재현의 위계질서를 전복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러나 영화는 동시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 신화와 그를 둘러싼 자본주의적 질서를 보다 견고하게 승인하며,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텍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열어젖힌 문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서사가 뒤따라 등장했다.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 (Kim's Convenience)」을 비롯하여, 중국 이민자 가족의 삶을 다룬 영화 「페어웰 (The Farewell)」 등이 화제를 모으며, 아

4 위의 책, 23쪽.

시아계 미국인은 더는 대체 가능한 투명한 실리콘이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가진 역사적인 존재로 스크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시아계 미국인 서사의 가치화 과정이 트럼프 시대 미국의 다른 중요한 인종적 담론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바로 2012년 시작되었다가 2020년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페리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사망하며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블랙 라이브즈 매터 (Black Lives Matter)’ 운동이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은 노예제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흑인에 대한 국가적 폭력과 차별의 구조를 사회적으로 알리며, 흑인을 넘어서 미국 내 여러 유색 인종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규모로 진행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은 동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갈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20년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되면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거나 상점을 약탈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1992년 LA 폭동을 연상시키게 했고, 당시 미국의 공권력이 외면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한인 사회와 흑인 커뮤니티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의 반대편에 선 백인 우월주의자들 및 ‘평화적’ 운동만이 순수하게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92년 LA 사건 당시 옥상에서 자위대를 결성하여 총을 쏘는 한국인들의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며, 그 ‘옥상의 한국인들 (Roof Koreans)’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달았다. 이는 범망 밖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던 한국인들을 ‘흑인 폭력 대 정의 구현’의 구도에서 백인의 위치에 다시 소환하여 위치 짓는 것이었다. 반면,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당시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의 충돌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백인 우월주의에서 기인했음을 설명하며, 당시 부유한 백인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동원되었던 경찰력의 공백 속에서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인종 정치를 재성찰하는 게시글도 이어졌다. 1992년에 이어 2020년, 백인과 흑인, 그 오래된 갈등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에 직면한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서 있는가? 당신은 누구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눌 것인가?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범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다문화 사회로서의 미국 그리고 전지구화에 대한 발전론적 사고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국민국가(na-

tion-state) 간의 국경은 점점 낮아지고, 각 국가를 넘나드는 초국가 시대의 다변화된 유동성에 대한 이상은 한순간에 그 허상을 드러냈다. 국경은 전에 없이 견고해졌고, 국가 간 여행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중국과 남미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된 공산품으로 유지되었던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은 2020년 화장지 대란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듯이 가장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의 출발지로 알려진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인종적 혐오가 미국 사회를 휩쓸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또 다른 곤경에 취했다. 아시아계 여성과 노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며, 아시아계 미국인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와 같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연대자 혹은 방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종적 위치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의 위치에 선 것이다. 그러나 ‘2021년 애틀란타 스파 총격사건’처럼,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은 인종적 폭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과정을 겪으며, 미국 사회의 백인 중심의 인종적 위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위치를 다시 고민하는 ‘아시안 라이브즈 매터 (Asian Lives Matter)’와 같은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3 한류와 한국계 미국인 문화 상품의 부상

이처럼 급변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소수적 감정의 서사화에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은 다른 방향에서 도달했다. 바로 최근 몇 년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성장한 한국 문화의 파급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었다. 90년대 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한류”라고 명명되었던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본격적인 온라인 플랫폼 시대를 맞아 “한류 2.0”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곧, BTS를 위시한 한국 대중가요가 미국의 주류 음반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는 한국계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주변화된 시장을 넘어서 주류 시장에서 그 시장 가치를 인정받은 듯하다.

한국 문화가 미국 시장에서 거둔 이러한 전례 없는 성공은 한국발 상품의 경쟁력 향상 이외에도, 트럼프 시대 미국의 인종주의적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새로운 다양성에 대한 요구 및 전술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서사에 대한 미국 시장의 요

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백인 남성 중심의 주류문화에 대한 비판과 다양성 실천에 대한 운동이 여러 대중문화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일례로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의 후보자와 수상자를 결정하는 영상 예술 과학 아카데미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며, 수상자 역시 대부분 백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2015년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 (#OscarsSoWhite)’ 운동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시작되었다.⁵ 이와 함께 2017년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지속적인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전 세계적인 #MeToo와 ‘Time’s Up’ 운동이 시작되며, 미국 대중문화시장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문화는 미국 시장에서 이전과 다른 위치에 놓여, 미국 문화의 포용성과 다양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국제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등을 수상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90년대 말 이후 한국영화가 여러 우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기생충」의 성공은 ‘세계영화’라는 상상적 경기장을 넘어서, 세계영화 시장 밖에 존재하며 영화 미학과 산업의 원 형태이자 보편성을 상징하는 미국의 할리우드에 진입하여 승인받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성공은 상상된 ‘한국적인 것’보다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것,’ 즉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해 비판하는 영화의 서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기생충」이 보여준 것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재편되어 한류 열풍과 함께 성장한 한국 문화산업의 인프라를 통해서, 한국의 영화들이 소수적이거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인 서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문화적 자부심이었고, 이는 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열광으로 입증된 듯 보였다.

이러한 미국 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과 성공은 많은 한국계 미국인 창작자들을 고무시켰다. 한국발 한국 문화의 성공과 더불어 미국 내의 한국계 문화에

5 Reggie Ugwu, “The Hashtag That Changed the Oscars: An Oral History,” *The New York Times*, Feb 6, 2020.

<https://www.nytimes.com/2020/02/06/movies/oscarssowhite-history.html>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와 감독, 배우들이 (뒤늦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서사를 발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캐시 박 흥이 논한 끝없는 소수적 감정, 본인에 대한 인지부조화와 거부감이, 주류 시장에 등장한 한국 문화를 통해, 문화적 자부심과 더불어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상 수상 소식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계기이자, 그들에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순간을 의미했다.⁶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문화가 거둔 성공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한국계 미국인 서사와 한국발 문화산업 간 협업을 가능하게 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오늘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분리된 국민국가 단위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전의 할리우드가 해외의 제작자 또는 배우들을 미국화하여 소비하는 방식—예를 들어 홍콩 감독들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을 넘어서, 한국의 배우, 감독, 제작자가 한국계 미국인 문화제작자들과 직접 협업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후술할 리 아이작 정 감독의 「미나리」와 애플 티비에서 드라마로 제작한 「파친코」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서사는, 한국배우 및 제작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국적 한국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펼쳐 놓았다. 미국의 한국계 디아스포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분리되어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시간성을 구성하며 작동하는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더불어 가능해진 이와 같은 변화는 고국과 디아스포라 문화의 단절을 재접속시키며, 한국에서 출발하여 해외로 나아가는 한국발 한국 문화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를 복잡화시킨다.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와 한국발 한국 문화를 가로지르는 지리적 문화적 장벽은 희미해졌고, 미국 소비시장에서 이들 문화는 인종적 다양성의 대표자로서, 한국 소비시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에 대한 상징이라는 이

6 Rebecca Sun, “Korean Americans React to ‘Parasite’s Historic Oscar Wins: ‘The Door Has Opened to a Goldmine’,” *The Hollywood Reporter*, Feb 14, 2020.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general-news/korean-americans-react-parasites-historic-oscar-wins-1279535/>

중적 위치에 동시에 놓인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이라는 얽혀있는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한국(계) 문화에서 캐시 박 흥이 언급한 한국계 미국인의 소수적 감정은 어떻게 번역되어 위치 지어지는가? 본고는 최근 큰 주목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의 서사 및 문화 상품으로서 영화 「미나리」와 소설 『파친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4 「미나리」: 젠더화된 소수적 감정, 어떤 소수적 감정이 서사화되는가?

한인 이민자 1세대의 역사를 그린 리 아이삭 정 감독의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든 소규모 독립영화로서는 유례없는 주목을 받았다. 「미나리」가 미국 시장에서 받은 찬사는 앞서 서술한 「기생충」으로 정점에 이른 듯 보이는 한국 문화의 상품 가치와 미국 내의 다양성 맥락에 놓인 한국적 서사에 대한 수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2021년 「미나리」의 성공은, 바로 그 전 해의 「기생충」이 거둔 성과의 연장 선상에서 종종 논의되었다.⁷ 그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국발 한국 문화로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은 「기생충」과 달리, 「미나리」는 한예리와 윤여정과 같이 잘 알려진 한국배우들을 주연으로 기용하고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이 대본과 연출을 담당하고 미국의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로 미국영화 혹은 미국의 내셔널 시네마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그 시작은 2020년 미국의 골든글로브 시상식 (Golden Globe Awards)에서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지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작 국적이 미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외국어 대사가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미국영화’가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내셔널 시네마

7 일레로, 이동연은 논문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의 서두에서 「기생충」과 「미나리」를 구분 없이 한국영화로 서술한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주요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올해 오스카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가 거둔 성과들은 그동안 유럽 4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쌓은 명성을 뛰어넘는다.” 이동연,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이날치’ 현상을 통해서 본 문화세계화」, 『한국예술연구』 제32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54쪽.

에 대한 개념의 재성찰 및 할리우드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보수적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⁸ 골든글로브 측은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며 미국적이기에는 너무 이국적—혹은 한국적—이라고 해석했지만, 정작 영화는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에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강옥희는 한국 내의 미적지근한 관객 반응에 대해 “세계 영화제에서의 평가나 미국 내에서의 평가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의 어정쩡한 평가는 「미나리」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한국영화들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가 지니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이주와 관련한 디아스포라적 정서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달리 생소하고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한다.⁹ 이민의 경험이 없는 한국 내의 한국인들에게 「미나리」는 한국배우들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낯선 서사’였던 반면, 한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이민자 출신 미국인들에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서사’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나리」에 대해 한국 관객들이 느꼈던 ‘거리감’과, 미국의 이민자 출신 관객들이 느꼈던 ‘친밀감’ 사이에는, 문화적 국경의 경계 밖에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수적 감정’의 비판적인 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미나리」는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느끼는 소수적 감정을 여러 층위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의 소수적 감정이 젠더화된 감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한국인 부부 제이콥과 모니카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도시에서의 그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미국에서, 그들은 캘리포니아와 시애틀의 병아리 부화장에서 “병아리의 궁둥이만 들여다보는” 일을 하며 가족을 일구었다. 영화는 다소 독단적인 제이콥의 결단과 함께 시작한다. 병아리 사육장에서 온종일 죽이기 위해서 수컷 병아리를 걸러내는 일을 하던 제이콥은 진짜 남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는 10년간 부부가

8 류재형, 「「미나리」의 국적성과 내셔널 시네마」, 『영상기술연구』 제36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2021, 165-166쪽.

9 강옥희, 「이산 동화 개척의 서사-「미나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 국제한인문학회, 2021, 99쪽.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칸소의 황무지에 땅을 사고 자신의 농장을 건설하는 꿈을 꾸며 온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

이렇게 영화는 한국인 이민자 1세대의 서사에 황무지를 개척하며 남성성을 강화하는 서부극 서사의 구도를 비스듬히 겹쳐놓으며 시작한다. 가장 미국적인 장르라고 일컬어지는 서부극은 영화 서사의 초기부터 등장하여 상당히 유연한 방식으로 확장되어왔지만, 초기 서부극의 중요한 구도는, 무법적인 서부지역에 홀연히 등장한 영웅이 악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문명화시키는 미국 건국에 대한 프론티어 신화에 기대고 있다. 제이콥은 아칸소의 허허벌판에서 자신만의 농장을 일궈 성공을 거두어, 성공한 아버지이자, 개척자이자, 미국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 그러나 제이콥의 이주를 추동하는 것은 서부극의 영웅과 달리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고, 주류사회에서 거부당하는 소수적 감정이다. 그리고 이 소수적 감정은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남성성에 대한 위기감으로 강화된다. 이 영화를 위해 감독이 참조한 서부영화가 희망적인 개척을 그린 서부극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이면의 상처를 응시한 「분노의 포도」와 같은 영화였는 점은, 제이콥의 소수적 감정의 서사화의 토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¹⁰ 더불어, 제이콥의 인종화된 소수적 감정은, 그가 아시아인이 거의 없는 아칸소 허허벌판의 농장에서 ‘한국’의 채소를 키워 당시 늘어나는 한인 사회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의 꿈에서 잘 드러난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 중심의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그간의 경험으로 여실히 깨달은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가부장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며, 동시에 소수적 감정을 자본주의적 성공의 동력으로 삼는 기획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제이콥의 사소한 감정들 (minor feelings)은 자신의 아내 모니카가 겪는 인종화된 사소한 감정들과 젠더적으로 차별화되며, 그의 아버지-되기 기획은 아내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부부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감독 아이삭 정의 자전적 캐릭터이기도 한,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데이빗이다. 선천적 심장병을 앓고 있는 데이빗은 언제 위급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

10 위의 글, 114쪽.

래서 모니카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뛰지 말라’는 말을 언제나 들어야 하는 데이빗은 건강한 남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더불어 제이콥의 남성성 회복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인 존재로 등장한다. 온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부부가 데이빗의 건강을 주시할 수 없는 데다, 병원도 멀리 있는 시골에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이콥의 프로젝트를 통합할 최후의 수단으로 모니카의 어머니 순자가 한국에서 아칸소로 이주한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할머니 순자는 데이빗에게 낯설고 이상하기만 하다. 자신이 미국의 미디어와 그림책에서 보았던 미국의 할머니와 전혀 다른 순자는 낯선 냄새¹¹를 풍기며, 자신이 속한 소수자성을 그대로 상징하는 존재이다. 순자에 대한 데이빗의 본능적 거부감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소수적 감정의 원형이 될 것이다. 순자는 제이콥의 가부장 되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갑자기 병에 걸린 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제이콥이 키워 납품하려던 농작물을 불태워버린다. 그러나 그녀는 부부의 걱정과 달리 데이빗이 이미 충분히 강한 (남자) 아이임을 인정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제이콥이 계획적으로 키워낸 농작물이다 불타도 살아남은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와 같은 상징적 존재로 신화화된다.

영화의 서사 안과 밖에서 순자 캐릭터와 이를 연기한 배우 윤여정에 대한 찬사는 다른 두 여성 캐릭터 모니카와 딸 앤에 대한 상대적 침묵과 대비된다. 영화 「미나리」가 구축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서사에서, 어머니와 딸이 느끼는 인종적, 젠더적, 소수적 감정은 서사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그 빈 자리에 데이빗의 성장을 승인하며, 소수적 감정의 원형이자 상징으로 추상화되는 순자가 전경에 등장하는 것이다. 순자는 현재 미국 사회에 함께 존재하지 않지

11 “할머니에게는 한국 냄새가 난다 (Grandma smells like Korea!)”라는 데이빗의 대사는 시청각적인 매체인 영화가 전달하지 못하는 후각적 감각을 지시하며, 관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의 후각적 심상을 상상하여 영화의 서사와 접속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만든다. 그와 함께 한국영화 「기생충」에서 계급 간의 넘을 수 없는 벽을 상징했던 “냄새”라는 감각을 환기시키며, 두 영화 사이의 텍스트적 연결성을 만든다.

만, 이민자 세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존재로 추상화된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지적은 통렬하다.

그러나 순자는 데이빗에게 이방인이었듯, 영화의 주요 인물 가운데 가장 타자화된 캐릭터다. 「미나리」에서 순자는 낯설고 기이한 원류의 단서이고, 분열 직전인 가족을 통합하는 사건이며, 사위가 헛물을 켜는 동안 개울가에 미나리를 심는 지혜의 노인이자,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한국 산나물의 생명력을 비유의 다리로 삼아 위로를 제공하는 메신저다. 이 과도한 기능성으로 인해 ‘우리 할머니도 이랬다’거나 ‘한국 할머니들은 이렇다’거나 하는 평균을 추출하려는 시도들은 다소 미심쩍게 느껴진다.

재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집단의 일원이 가까스로 틈을 비집고 나올 때, 그 인물의 개인성을 ‘한국-할머니’식의 속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쉽게 범해지는 오류다. 이 과도한 대표성이야말로 서구 사회의 인종적 소수자들이 늘상 지고 다니는 부담이 아니었던가.¹²

아버지 제이콥이 ‘빅 가든’을 만드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고, 데이빗이 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남자아이로서의 정체성을 도전받는 동시에 승인받는 동안, 그들을 돌보는 어머니 모니카와 누나 앤의 서사는 그들이 내쉬는 얇은 한숨 사이로 사라진다. 영화 「미나리」가 서사화하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의 ‘소수적 감정’은 젠더화된 다른 ‘소수적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중요성을 획득하는 모순적 지점에 놓여있다. 또한, 찬사를 얻은 외할머니 ‘순자’라는 캐릭터는, 2세대 이민자 작가가 신화화는 동시에 타자화하는 할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인종적 스테레오 타입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항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다. 황미요조는 ‘순자’라는 캐릭터와 이를 연기한 배우 윤여정에 대한 서구 시장의 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2 텡알, 「아시아 이민자 서사의 흐름과 영화 ‘미나리’: 1세대 한인 여성 이민자의 눈으로 포착한 변화」, 일다. <https://www.ildaro.com/8986> (접속일:2022.6.30.)

그러나 핵심은 이 괴짜 할머니의 구체적인 모습은 기존의 오리엔탈리즘과 늘상 관계를 맺어 오던 (폭력적이고 강한 남성성 혹은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모성과 같은) 향수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순자와 그리고 시상식 시즌 배우 윤여정이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언론이 수용하는 방식은 이방인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역시 타자화이지만 모성, 기원과 같은 예전 오리엔탈리즘을 구성하는 노스텔지여와 관련이 없다. 순자와 윤여정에게는 외래성, 예외적인 것이 핵심이며, 미국 내에 위치하여 주류문화와 분리된 이민자 스토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민사를 전개하는, 사실상 이민사로 미국 역사를 전유하는 「미나리」의 의미와 가장 동떨어진 것에 화제가 집중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영화 「미나리」, 미국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민자로서 미국사를 보게 하는 「미나리」와 미국 영화 사이의 경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 무의식적 안간힘 아닐까?¹³

즉, 윤여정이라는 한국배우와 그녀가 연기한 외할머니 캐릭터는 “관대한 심사자”¹⁴의 위치에 스스로를 놓으면서도 미국영화와 이민자 문화 사이의 경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주류문화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윤여정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과 잇따른 수상 소식을 전하는 전반적인 방식은, 영화 「미나리」가 펼쳐 놓은 복잡한 인종적 지도 속의 한국계 미국인 서사를 ‘한국인의’ 성공 신화로 번역하면서, 다시 한번 소수적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국의 매체들은 앞다투어 영화 「기생충」에 이은 또 다른 쾌거로 「미나리」의 성공을 해석했으며, 「기생충」도 ‘정복하지’ 못했던 배우 부문에서 윤여정이 수상한 것을 또 다른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 장면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영화시장에서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제작자로서 느껴왔던 소수적 감정들은

13 황미요조, 「[문화비평] 윤여정, 미국 내 아시안 웨이브, 젠더」,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22호, 2021 가을, 99쪽.

14 강나경, 「할리우드의 제국주의적 응시: 영화 〈미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 15권 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126쪽.

다시 사소한 것으로 사라져갔다.

5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과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의 연결과 단절

한국계 미국인의 소수적 감정의 배치와 번역,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변화의 문제는 민진 리의 2017년 소설 『파친코 (Pachinko)』¹⁵에서 더욱 중요하게 드러난다. 이민자 1.5세대인 민진 리는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의 뉴욕 퀸즈로 이주를 했고, 아이비리그 대학과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다가 건강 악화를 계기로 소설가로 전향한다. 2007년 출판된 그녀의 첫 장편 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음식 (Free Food for Millionaire)』는 뉴욕에서 자란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2세대 한국계 미국인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 매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두 번째 장편 소설 『파친코』는 10년 뒤, 첫 작품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성공을 거두며,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파친코』는 2017년 미국의 National Book Award for Fiction의 최종 후보작에 올랐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해 자신이 읽은 최고의 책 중 한편으로 추천하면서 그 인기가 더해져, USA 투데이가 선정한 2018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50위에 올랐다.¹⁶

『파친코』에 대한 미국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의 배경에는 전술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재현을 둘러싼 여러 담론과 더불어, 미국에서 달라진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위상과 이에 따라 상승한 ‘한국적인 것’의 상품 가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소설을 다시 읽고자 한다. 왜 민진 리는 두 번째 작품에서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 서사를 넘어서 재일조선인의 서사를 썼을까?

15 Min Jin Lee,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2017.

한국어 번역본: 이민진, 이미정 역, 『파친코』 1·2, 문학사상, 2018.

16 Mary Cadden and Christopher Schnaars, “Michelle Obama’s ‘Becoming’ is USA TODAY’s No. 1 book of 2018. See the others in top 100,” *USA TODAY*, Jan 5,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life/books/2019/01/05/usa-todays-top-100-best-sellers-becoming-no-1-2018/2473481002/>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재일조선인 서사는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 한국계 미국인의 소수적 감정과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이 이 소설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감응하는가?

소설 『파친코』가 2018년 한국어로 번역되면서,¹⁷ 소설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한국에서 이 이루어졌다. 여러 연구자는 『파친코』에서 새로운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하거나¹⁸ 폐쇄적 장소성을 넘어서는 탈경계적 공존의 메시지를 분석하는¹⁹ 등, 한국문학과 재일조선인 문학, 그리고 재미 한국인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디아스포라 문학이자 이민자 문학으로서 본 작품을 분석했다.²⁰

여러 인터뷰와 후기에서 민진 리는 『파친코』의 프로젝트가 자신이 예일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초청 강연에서 처음 듣게 된 재일조선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작가는 ‘자이니치(在日)’로 불리며,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재일조선인들의 이야기에 충격받은 동시에 매료되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7년 남편이 일본으로 발령을 받아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직접 접하며,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따라서 처음 재일조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30년에 걸쳐” 이 소설을 썼다고 작가는 밝힌다.²¹ 이 프로젝트의 여정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재일조선인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영어’라는 언어로, ‘아이비리그 대학’

17 이민진, 이미정 역, 『파친코』 1·2, 문학사상, 2018.

18 오태영, 「경계 위의 존재들-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제8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377-405쪽.

19 임진희,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277-280쪽.

20 주혜정, 「한인 이주와 트랜스 내셔널리즘: 재미교포 작가의 재일교포 이야기 『파친코』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103-107쪽.;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Pachinko)』에 나타난 이민자 문학적 특징」, 『한국문화』 제9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227-263쪽.

21 이민진, 이미정 역, 「감사의 말」, 『파친코』 2, 문학사상, 2018, 383-385쪽.

에 다니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에게 닿으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는 이 특권적인 이야기의 전달 경로는 소설 서사의 구조와 연동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 독자들이 『파친코』의 서사에 공감하는 중요한 감정적 통로로 기능한다.

소설은 여주인공 선자를 중심으로 1910년대부터 1989년²²까지 약 80년간의 세월 동안 선자가 부산의 영도에서, 일본의 오사카로, 그리고 요코하마로 이주하며, 가족을 이루고 살아남은 역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은 한국 근대사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지만, 긴 역사가 있는 재일조선인 서사와는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재일조선인 문학을 연구하는 사카사이 아키토는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던 정치적 운동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역사와 그에 이은 전후 냉전 상황과 결부된 민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소설이 일본인과 조선인을 단순화하여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치열하게 생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 미국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 작가로서의 문제의식이 놓여있다고 말한다.²³ 그런 면에서 『파친코』는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오며 민진 리가 느꼈던 소수적 감정들을 통해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을 이해하고 서사화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친코』가 일본에서 나온 재일조선인 서사와 구별되는 동시에 미국 독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채널은 소설이 주되게 기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다. 특히 소설의 1부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선자와 두 명의 남자의 관계 구도는 흥미롭다. 선자는 평생 자신이 고향을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전근대적 인물이지만, 분명한 자신의 가치관과 회복력을 가진 여성이다. 그러한 선자 앞에, 상반된 근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두 명의 남자, 고

22 「감사의 말」에서 작가는, 1989년이 자신이 미국인 선교사의 강연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때이자, 이 이야기를 처음 생각했던 때라고 밝히고 있다. 위의 책, 383쪽.

23 逆井聡人, 「ミンジン・リー『パチンコ』(原著): 構造的差別との闘いと翻訳の時差について: 在日・コロナ・#BLM」, 『現代思想』 48卷11号, 2020年9月, 150-154.

한수와 백이삭이 나타난다. 고한수는 일본인 무역상 밑에서 일하는 조선인으로, 민족이나 정치 같은 문제보다는 생존 그 자체와 그를 위한 돈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자본주의적 인물이다. 선자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선자를 조선의 현지처로 삼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는 돈의 힘으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선자는 이를 단칼에 거절한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남자 주인공, 평양 양반 출신의 목사 백이삭이 등장한다. 그는 오사카에 있는 형에게 가는 길에 선자의 하숙집에 들렀다가 미혼모가 될 처지에 놓인 선자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는 선자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오사카로 함께 가기를 청한다. 소설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백이삭의 결정을 기독교적인 희생과 속죄의 주제로 설명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기에 이상적인 기독교적 윤리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다. 부유한 평양 양반 출신이라는 그의 사회적 배경과 기독교적 가치관은 고한수의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대되며, 이 두 상반된 인물 사이에서 선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백이삭이라는 인물이 구현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철저하게 반자본주의적이며 비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일제강점기 평양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기독교에 대한 연구와 자신의 가족사²⁴를 바탕으로 백이삭과 그의 가족의 서사를 구축했다. 그러나 『과친코』의 백이삭 서사에서 주목할 지점은, 그가 193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냉전 시기 미국의 개입과 함께 남한의 정치지형에서 큰 축을 담당한 기독교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이다. 백이삭의 기독교적 가치관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항하는 민족운동과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²⁵, 전후 냉전 상황과는 완전히 단절되며, 해방 후 남한 사회를 지

24 작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양 신학교 출신의 장로회 목사로 부산에서 교회를 운영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Michael Luo, "What Min Jin Lee Wants Us to See," *The New Yorker*, Feb 17, 2022.
<https://www.newyorker.com/culture/the-new-yorker-interview/what-min-jin-lee-wants-us-to-see>

25 백이삭의 형 사무엘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세상을 떠났고, 백이삭은 일본에서 같은 교회의 신도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모진 고문을 받아 일찍 세상을 떠났다.

배한 미국의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정치화된 기독교와 분리된 채 그 순수성을 유지한다. 캐시 박 흥은 한국전쟁 후 남한 사회에 대해 “폭탄이 터져 파인 땅에 사탕을 심으면 그 사탕 껍질에서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자라난다.”²⁶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파친코』가 그리는 기독교는 냉전과 분단의 과정에서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미국의 개입과는 무관한, 순수한 형태의 이상적 가치관으로 남는데, 이는 미국의 독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감을 확보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정치적인 순수한 구원의 메시지에 정박시키면서, 소설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개입했던 평양 출신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역할을 완벽하게 외면한다.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에는 해방 전 수많은 기독교 인구와 “근본주의 신학 노선의 평양신학교”가 있었다.²⁷ 해방과 함께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좌파가 우세하자, 평양의 근본주의 기독교 목사들은 “올바른 원칙(right principle)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월남했”²⁸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남한에서 반공적 기독교의 토대를 만든 한경직 목사이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부여받은 해방 전 일본 종교의 적산 재산을 바탕으로 1945년 영락교회를 설립했으며²⁹, 오갈 데 없는 월남 청년들을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반공 기독교 전사로 무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북기독교 세력은 반탁운동의 선봉에 서서 이승만 세력을 등에 업고, “1946년 11월 30일 종로 YMCA 강당에서 이북 5도를 모두 통합한 서북청년회를 결성”³⁰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한 목사는 스스로 “서북청년회를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했으며,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을 평정했

26 캐시 박 흥, 앞의 책, 246쪽.

27 이덕주, 「신학이 정치를 만날 때 해방 후 신학갈등과 교회분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44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115쪽.

28 김홍수, 「다시 생각해보는 평양의 기독교 문제」, 『기독교사상』 제721호, 대한기독교서회, 2019, 4쪽.

29 양봉철, 「제주4·3과 서북기독교」, 『4.3과 역사』 제10호, 제주4.3과역사, 2010, 196쪽.

30 위의 글, 212쪽.

다”³¹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제주도 반란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민들과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무장충돌이 계속되었던 제주 4.3 사건으로, 해방 후 재일조선인이 일본으로 재이주하고 두 개의 조국 사이에서 반-난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글쓰기에 있어 원점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대담집 『왜 끊임없이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제주도 4.3 사건의 기억과 문학』³²에서 4.3 당시 일본으로 밀항한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종과 본인이 직접 4.3을 겪지 않았지만, 당시 밀항한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산도』라는 대작을 쓴 김석범이 이야기하듯이,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문학에서 제주 4.3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파친코』는 평양의 기독교를 순수하게 비정치적이며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평양의 기독교와 긴밀하게 얽혀있는 재일조선인 역사의 큰 줄기를 서사에서 완벽히 제거한다.

더불어 평양 출신 기독교 가문이라는 백이삭의 배경은 선자의 가족이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요동치던 정치적 변화와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남북 분단과 재일조선인 북송과정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등장할 뿐, 선자의 가족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에게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이며, 이는 노아와 모자수라는 선자의 두 아들의 행로를 통해 그려진다. 노아는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공부에 매진하여 명문대에 진학하지만, 자신이 “깨끗하고 올바른” 백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야쿠자 고한수의 “더러운 피”를 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족을 떠나 완전히 일본인으로 패싱(passing)하는 삶을 선택한다. 반면 모자수는 재일조선인 공동체 안에서 파친코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만, 결코 차별의 벽을 넘지는 못한다. 이러한 2세대 재일조선인의 갈등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환상과 그것의 불가능성을 인지할 때 생기는 자기 혐오와 같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소수적 감정들과 공명한다. 따라서 소설 『파친코』는 이러한 2세대 재일조선

31 위의 글, 218쪽.

32金石範·金時鐘·文京洙,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2001.

인 캐릭터들이 겪는 갈등들을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소수적 감정들을 경유하여 재해석하고 재배치하며, 식민과 냉전을 거치며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놓여있는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을 ‘미국 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감정으로 재맥락화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매끈하게 엮여있는 이민자로서의 재일조선인 서사에 균열을 내는 캐릭터가 3세대에 이르러 등장한다. 그는 바로 모자수의 아들인 솔로몬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피비(Phoebe)이다. 솔로몬과 피비는 모두 한국계 외국인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지만, 피비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받는 차별의 복잡한 층위를 이해할 수 없다. 일본에서 “한국인”과 “조선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3세인데도 국적은 남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피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솔로몬이 아버지의 파친코 사업을 이어받기로 하자, 피비는 그를 떠나 뉴욕으로 돌아간다. 김미영은 피비의 캐릭터에 대하여, 이 인물을 “작가의 메가폰적 인물로 보면, 민진 리는 자이니치를 차별하는 일본인의 태도나 정책뿐 아니라, 일본에서 몇 대째 살면서도 여전히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 즉 일본에의 귀화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³³고 해석하며 자이니치 서사의 전형에서 벗어난 “이민자 문학”으로 『파친코』를 이해한다. 그러나 소설 안의 한국계 미국인 피비와 재일조선인 3세 솔로몬 사이에서 융합되지 않은 채 남겨진 틈을 통해, 작가는 캐시 박 홍이 트린 T. 민하를 인용하여 논하는 “근처에서 말하기 (speaking nearby)”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에 관해 말하기보다 근처에서 말하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과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잠재적 간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표성의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그리하여 당신이 대상자와 아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대표하거나, 대신하건, 그 위에 군림하여 발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근처에서, 즉 가까운 거리에서 말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타자가 물리적으로

33 김미영, 앞의 글, 251쪽.

로 현존하든 부재하든), 그러려면 의미 규정을 의도적으로 멈추어 의미가 간단히 봉쇄되지 않게 하고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 여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³⁴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작가가 공감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들을 해석하고 재배치한 매끈한 서사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여백 같은 지점을 한국계 미국인 피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과 재일조선인 이주의 역사의 차이와 틈새를 보여주며, 작가가 재일조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 근처에서 말하며 남겨놓은 의도된 서사화의 실패의 지점, 혹은 서로 다른 한국계 이민자의 소수적 감정이 봉합되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어로 쓰인 최초의 재일조선인 서사로서 소설 『파친코』는 오랜 재일조선인들의 자기 서사의 역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여러 소수자성을 가로지르는 선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를 펼쳐 보인다. 이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위치를 동아시아라는 지역과 역사를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인 ‘이민자’로 정의하며, 미국에서 소수자로 살아온 작가의 소수적 감정을 기반으로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을 이해하고 서사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나보령은 “소수자 서사로서의 도전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파친코』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모범 소수자’ 신화”³⁵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는 선자의 가족 모두가 모두 성실히 일하고, 파트너 한 사람에게만 충실한 시스젠더 이성애자이며, 범 죄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과 오히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열등함의 특징들은 선자 가족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강박적인 모범 소수자성은 노아의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선자의 큰아들인 노아는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올바르고 모범적인

34 캐시 박 흥, 앞의 책, 143쪽.

35 나보령,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인문논총』 제79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449쪽.

목사 백이삭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일본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백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야쿠자 고한수의 “더러운 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더는 훌륭한 조선인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좌절하며 가족에게서 자취를 감추고 일본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고한수와 선자가 노아를 다시 찾았을 때, 노아는 그들을 만난 다음 날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다. 노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뿐만 아니라, 완전무결하게 깨끗하고 모범적인 조선인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강박이기도 하다. 나보령은 미국 문학에서 한 번도 재현되지 않았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작가가 오히려 보수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짚어낸다. “매 순간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소수자,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소수자라는 모범 이주민 소수자 성공 신화의 전형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재생산되었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였다. 『파친코』에 대한 미국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열광이야말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³⁶

요컨대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자신이 느껴온 소수적 감정을 바탕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되짚으며 그들의 소수적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독자들과의 공감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시도를 다시 읽자면, 미국이 연루되지 않은 한국인 이주자의 서사를 통해서, 미국인 독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서사를 이해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인 독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박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으로 작동하는 백이삭과 피비라는 캐릭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기독교적 윤리의식과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재일조선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거리감을 확보하면서, 미국인 독자의 관점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나와 연루되지 않은 ‘그들의’ 역사로 관망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파친코로 돌아가면서, 선자의 가족과 미국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사라진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말은 캐시 박 홍이 이야기하는 소수적 감정의 특징, 즉 “중대한 변화에 의해 축

36 위의 글, 455-456쪽.

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결여에 의해, 특히 변하지 않는 구조적 인종주의와 경제 상황에 의해 촉발³⁷되는 재일조선인의 소수적 감정을 서사화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자의 가족이 겪는 소수적 감정의 맥락, 즉 인종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일본을 넘어 더 넓은 시각에서 미국이 깊숙이 개입한 체제로 진전시키지 않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더 안정적인 상품 가치를 획득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파친코』가 애플 티비에 의해 드라마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적 지점들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듯하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의 성공으로 ‘한국적인 것’의 상품성이 증명되면서, 애플 티비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파친코』를 드라마화했고, 그 첫 번째 시즌이 2022년 3월 방영되기 시작했다. 한국계 미국인 쇼러너와 감독, 각본가, 배우, 그리고 재일조선인 배우들이 참여한 드라마 「파친코」는 공개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또 다른 한국 문화의 성공으로 이를 대서특필되고 있다.

소설 『파친코』의 드라마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논의 지점을 남긴다. 먼저, 드라마 「파친코」의 쇼러너 수 휴는 영어로 서술된 소설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모두 쓰이는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한 번역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밝힌다.³⁸ 이는 한국의 콘텐츠가 “1인치의 장벽”을 넘지 못해 세계 시장에 닿지 못했다는 오래된 한국의 문화적 콤플렉스와 한국어 원본과 (불완전한) 영어 번역본에 대한 기존의 구도를 뒤집어 생각하게 한다. 「기생충」이 그 장벽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주변화된 한국 문화의 콤플렉스를 해소한 것처럼, 「파친코」는 다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적인 콘텐츠의 시장 가능성을 다시 입증하는 한편, 한국어

37 위의 책, 84쪽.

38 수 휴는 2022년 3월 22일 하와이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 “Empires in Motion”에 참여하여, 영어로 쓰인 소설을 각색하며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는 영어로 쓰인 소설을 다국어 대본으로 번역하는 언어 간 번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소설에서 다국적 OTT플랫폼을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라는 미디어 간의 번역을 포함하는 과정이었다. 소설 『파친코』에서 드라마 「파친코」의 각색과정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자세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은 ‘덜’ 한국적이라는, 혹은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한국에 대한 텍스트는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종적 근본주의와 언어 민족주의를 전복시키기는 순간을 만든 것이다. 더불어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의 제작과정은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 확장된 한국인 이주의 역사와 접속시키는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로 한국인 이주자를 미국의 문화시장에서 위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서의 열광은 다소간 씩씩한 감상을 남기기도 한다. 소설과 드라마의 성공으로 종종 한국계 미국인과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로 환원되어 이해되고, 특히 일본 대 한국, 가해자 대 피해자,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순수한 피해자로서 한국인의 위치를 고정하는 담론적 효과를 낳았다. 더불어 냉전 이후 아시아를 지배한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적 질서와 영어와 일본어/한국어라는 언어의 위계 속에서 소설 『파친코』가 거둔 성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파친코』의 성공이 자본주의적 성취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소수적 감정이 휘발되는 것이다. 작가 민진 리의 성공에 대한 열광과 드라마의 예산 규모에 대한 뉴스들은 다시 미국의 능력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화—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봉준호처럼, 윤여정처럼, 민진 리처럼, 드라마 「파친코」의 제작진과 배우들처럼—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 신화의 메아리 사이에서 소수적 감정들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6 나가며

2019년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소설, 스테프 차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Your House Will Pay)』³⁹가 화제가 되었다. 이 소설은 1992년 LA 폭동에서 한국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 충돌의 도화선이 되었던 라타

39 Steph Cha, *Your House Will Pay*, HarperCollins Publishers, 2019.

한국어 번역본: 스테프 차, 이나경 역,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황금가지, 2021.

샤 할린스 살해사건⁴⁰으로 향한다. 소설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가해자였지만 법의 처벌을 피했던 한인 여성의 가족과 피해자였지만 정의를 구현 받지 못했던 흑인 소녀의 가족 역사를 되짚으며, 상처 입은 두 집, 두 인종, 그리고 그들의 소수적 감정들을 서사화한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처럼 자신이 미국의 인종주의에 크게 연루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레이스와 미리엄은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30여 년 전 15살 흑인 소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이름까지 바꾸며 한인 사회에서 숨어 살아왔지만, 어느 날 자신을 찾아낸 피해자의 조카에게 충을 맞는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연루된 어머니의 역사를 알게 된 그레이스는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며,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처음으로 자각한다.

캐시 박 흥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용어가 블랙파워 운동에 영향을 받아 급진적인 정치적 용어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한다.⁴¹ 스테프 차의 소설은 모범적 이민자라는 허울 속에서 인종적 차별과 함께 혜택을 누려왔던 아시아계 이민자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정치적 수치심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돌아가 미국의 인종적, 자본주의적 위계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위치를 냉정하게 돌아볼 것을 요청한다. 한국계 미국인의 소수적 감정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있어서,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 「미나리」와 소설 『파친코』, 그리고 애플 티비 제작의 드라마 「파친코」 등 최근 한국계 미국인들의 소수적 감정에 대한 서사들이 미국 내의 여러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고, 번역되어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이 서사들 내에서 작동하는 소수적 감정은 그 비판적 힘을 다소간 잃어가는 듯 보인다. 특히 이 텍스트들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이 ‘한국적인

40 1991년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여성 두순자가 자신의 마켓에서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가 오렌지 주스를 훔친다고 생각하여 몸싸움하다가 충으로 할린스를 찌서 살해했다. 두순자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백인거주지역으로 옮겨져 진행된 재판에서 두순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흑인들의 사법 시스템과 한인 사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었고, 로드니 킹 사건 이후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의 갈등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41 캐시 박 흥, 앞의 책, 252쪽.

것'으로 흡수되고, 소수적 감정이 민족적 자부심으로 변형되어 정전화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역학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유통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의 논리이다. 캐시 박 홍이 지적하듯, 이러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에 대한 미국적 신화는 종종 우리의 인종적 위치를 망각하게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백인성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 나라의 자본주의적 백인 우월주의 위계질서 속 어디쯤 위치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여태 그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꼼꼼히 따져보기는커녕, 일부 아시아인은 인종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백인들이 하는 똑같은 소리 못지않게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종 정체성 때문에 차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혜택도 누렸기 때문이다. (...) 다른 사람을 전부 누르고 앞서가라는 이 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신과 일치된 생존 본능을 갖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옥죄는 수치심은 물어버린 채 말이다.⁴²

이 지적은 한국계 미국인 서사가 한국에 번역되어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수적 감정을 휘발시키는 두 번째 이유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 내부의 소수적 감정들에 대하여, 더 정확히는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많은 집단과 개인들의 감정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는 것이다. ‘소수적 감정’에 대해 생산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백인성의 문제와 함께 인종주의적 위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듯, 한국 사회 내의 한국인들도 한국 사회의 인종적 위계에서 누리는 특권과 수치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 서사들이 그려내는 소수적 감정에 대한 이해는, 한국 문화의 우수함이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사소한 것으로 여겨진 수많은 감정과 존재들과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

42 위의 책, 122쪽.

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Hong, Cathy Park,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New York: One World, 2020.

Lee, Issac Chung, *Minari*, PlanB production, 2020.

Lee, Min Jin,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2017.

단행본

이민진, 이미정 역, 『파친코』 1·2, 문학사상, 2018.

캐시 박 흥,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마티, 2021.

스टे프 차, 이나경 역,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황금가지, 2021.

Steph Cha, *Your House Will Pay*, HarperCollins Publishers, 2019.

金石範·金時鐘·文京洙,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2001.

논문

강나경, 「할리우드의 제국주의적 응시: 영화 <미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5권 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123-146쪽.

강옥희, 「이산 동화 개척의 서사-「미나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 국제한인문학회, 2021, 97-121쪽.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Pachinko)』에 나타난 이민자 문학적 특징」, 『한국문화』 제9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227-263쪽.

김홍수, 「다시 생각해보는 평양의 기독교 문제」, 『기독교사상』 제721호, 대한기독교서회, 2019, 4-5쪽.

나보령,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인문논총』 제79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429-461쪽.

류재형, 「『미나리』의 국적성과 내셔널 시네마」, 『영상기술연구』 제36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2021, 165-188쪽.

양봉철, 「제주4·3과 서북기독교」, 『4.3과 역사』 제10호, 제주4.3과 역사, 2010, 179-257쪽.

오태영, 「경계 위의 존재들-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제8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377-405쪽.

육성득,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 담론의 실상」, 『기독교사상』 제717호, 대학기독교서회, 2018, 9-18쪽.

이덕주, 「신학이 정치를 만날 때 해방 후 신학갈등과 교회분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4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103-163쪽.

이동연,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이날치’ 현상을 통해서 본 문화세계화」, 『한국예술연구』 제32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53-74쪽.

임진희,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271-280쪽.

주혜정, 「한인 이주와 트랜스 내셔널리즘: 재미교포 작가의 재일교포 이야기 『파친코』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103-107쪽.

황미요조, 「『문화비평』 윤여정, 미국 내 아시안 웨이브, 젠더」,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22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1, 93-101쪽.

逆井聡人, 「ミンジン・リー『パチンコ』(原著): 構造的差別との闘いと翻訳の時差について: 在日・コロナ・#BLM」, 『現代思想』, 48卷11号, 2020年9月, pp. 150-154.

인터넷 페이지

탱알, 「아시아 이민자 서사의 흐름과 영화 ‘미나리’: 1세대 한인 여성 이민자의 눈으로 포착한 변화」, 일다. <https://www.ildaro.com/8986> (접속일: 2022. 6.30.)

Mary Cadden and Christopher Schnaars, "Michelle Obama's 'Becoming' is USA TODAY's No. 1 book of 2018. See the others in top 100," USA TODAY, Jan 5,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life/books/2019/01/05/usa-todays-top-100-best-sellers-becoming-no-1-2018/2473481002/>

Michael Luo, "What Min Jin Lee Wants Us to See," *The New Yorker*, Feb 17, 2022.

<https://www.newyorker.com/culture/the-new-yorker-interview/what-min-jin-lee-wants-us-to-see>

Rebecca Sun, "Korean Americans React to 'Parasite's Historic Oscar Wins: 'The Door Has Opened to a Goldmine'," *The Hollywood Reporter*, Feb 14, 2020.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general-news/korean-americans-react-parasites-historic-oscar-wins-1279535/>

Reggie Ugwu, "The Hashtag That Changed the Oscars: An Oral History," *The New York Times*, Feb 6, 2020.

<https://www.nytimes.com/2020/02/06/movies/oscarsowhite-history.html>

Abstract

The Inside and Outside of Minor Feelings

: The Distribution and Restructuring of Minor Feelings in Narrative Works by Korean Americans

Kim So Hye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ept of "minor feelings" coined by Cathy Park Hong in her 2020 book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which generated passionate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n this basis, the article examines the minor feelings embodied in recent cultural narratives produced by Korean American authors.

It argues that these "minor feelings" are not static or monolithic emotions but dynamic ones that are being constantly recontextualized as they cross cultural and national borders according to respectable society's different racial hierarchies. The essay first analyzes Lee Issac Chung's 2021 film *Minari*, exploring how minor feelings are gendered and which minor feelings are narrativized. The paper also analyzes how they are re-situated during the process of the transnational distribution of the film.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examines Min Jin Lee's 2017 novel *Pachinko* and questions how the minor feelings of Korean Americans and Zainichi Koreans are connected and disconnected in the narrative. By critically attending to the recent accolades of Korean American cultural products, this article aims to generate a productive discussion over the idea of "minor feelings" within and beyond the cultural bounda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Key Words: Minor feelings, Cathy Park Hong, *Minari*, Lee Issac Chung, *Pachinko*, Min Jin Lee, Korean American, Zainichi, Diaspora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